

민족정신 고취에서 민중 속으로 파고 들다



② 1970년대 - 전국 조직으로 확대 시기

대불련은 창립과 동시에 전국 조직을 지향했다. 명실상부한 전국조직으로 확대 된 것은 70년대 초였다.

전국 조직 강화는 현장 개정으로 이어졌다. 1970년 3월 5일 대의원기구 축소 및 지방장 회의를 대표자 총회로 통합했으며 총재 제도를 재 신설했다.

그해 3월 27일 열린 대불련 7차 전국대표자 총회에서는 회장단 및 의장단을 선출했고 총재를 추대했다. 그동안 대학생 장학금 등을 전달하는 등 물심양면 대불련 활동을 지원한 덕산 이산상 거사가 초대 총재로 추대됐다. 1973년 2월 8일 개최된 '제10차 대표자 총회 및 지방장 회의'에서는 지역별 33인 대표자를 뽑던 것에서 대학별 83명의 대표자를 뽑도록 했다. 지역 조직을 확대한 대불련은 1970년대 말 130개 대학에 지회를 뒀다.

내부 역량을 한군데 모으고 방향을 제시 하기 위한 대회도 잇따라 열렸다. 첫 시작이 1972년 열린 '화랑대회'다.

제1회 화랑대회는 1972년 8월 17~22일 전북 무주에서 개최됐다. 제1회 화랑대회에는 전국 17개 지부 83개 지회 간부 120여 명이 참석했다. 화랑대회는 그동안 대불련 각 지부에서 개별적으로 실시되던 수련대회를

전국적인 대회로 발돋움시켰다.

화랑대회는 대불련 통합과 진로를 모색하는 주제로 진행됐다. 화랑대회는 매년 진행 됐고 초기 120~150명 규모에서 1970년대 중반 300명 규모로 확대됐다.

당시 대불련은 화랑대회 취지에서 "우리는 우리 역사의 민족정신을 바탕으로 민족 통일을 성취한 신라 화랑 정신을 고취해 한국청년의 새 기운 진작운동으로 화랑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권역별 대회도 개최됐다. 1973년 1월에 열린 겨울 수련회는 '지구별 연합수련대회'로 개최됐다. 대회는 대불련 본부의 주도 하에 영남권과 호남권, 중부권, 북부권으로 나뉘어 실시됐다. 당시 대학별로 진행되던 수련대회가 각 권역별로 진행됨으로서 역량 결집의 계기가 됐다. 대불련은 이후 여름에는 화랑대회, 겨울에는 수련대회, 가을 창립 기념 청년제 등을 개최하며 본격 계도에 올랐다.

한일 학생교류도 불교를 주제로 활발히 진행됐다. 1970년대 초 대불련은 일본 학생들과 정기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1973년 6월에는 서경수 교수를 단장으로 대불련 회원 6명이 일본에서 제4회 한일학생불교회의를 개최한다. 1975년 3월에는 조계종 총부



원사에서 한일불교세미나를 열고 1976년 10월에는 일본 동경대, 경응대, 와세다대 초청세미나도 개최했다.

1970년대에는 대불련 주요 사업 중 하나 인 만해 한용운 스님 관련 사업도 활발히 진행됐다. 1973년 2월 22일 만해 한용운 선사 기념사업추진위가 발족하며 당시 국립공원이었던 망우리 묘지로의 이장과 동상 건립을 추진한다. 그해 3·1절에는 삼보

화랑대회 계기로 조직확대 박차 만해 한용운 스님 선양 사업 전개 민중불교 운동의 씨앗 뿌려

회관에서 만해 한용운선사사상 대강연회도 개최했는데 탄허 스님(불타의정신) 등이 연사로 나섰다.

민중불교 운동으로 이어져 대불련의 가장 큰 행사인 화랑이라는 명칭에서 보듯 당시 화랑대회는 신라의 화랑 정신 고취 및 민족사관, 종교관, 생사관의 확립과 국가 사회 전체에 참신한 윤리관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로 개최됐다. 민중의 개념보다는 민족주의가 바탕에 깔려 있었다. 하지만 1976년 열린 제 4차 화랑대회는

민중불교의 신호탄을 알린 대회였다. 그동안 대회를 통해 역량을 확인한 재가 청년불자들은 1970년대 중반 새로운 불교 운동을 고민한다. 당시 재가불자들은 수행과 수련, 불교공부가 가장 큰 관심사였고 1970년대 중반까지 개인적인 활동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 동국대와 서울대 대학생 불자들 사이에 '민중불교운동' 이념이 싹을 트며 대회의 양상은 다르게 변한다.

1976년 8월 12~17일 열린 화랑대회에서 이항령 '민중불교운동', 전재성 '민중불교 운동서론', 이선주 '불교의 사회성과 민중 불교운동론', 전보삼 '만해에 있어서 민중 불교', 배준상 '한국사회에 있어서 민중 불교', 최주홍 '대불련으로서의 민중불교' 등이 발표됐다. 이는 대불련이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도모했다는 반증이었다.

이후 민중불교운동 1세대인 여익구를 중심으로 1975년 고준환 황석영 등이 민중불교회를 결성한다. 대불련 회장이 전재성이 1977년 월간 <대화>에 '민중불교론'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며 민중불교를 알린다. 하지만 유신정권의 긴급조치로 이들이 구속되며 민중불교운동 이념은 조직운동이 아닌 이념으로 대불련을 중심으로 한 일부 학생들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민중불교 이념은 1980년대에 들어서며 활짝 꽃피게 된다.

노덕현 기자 nodu@hyunbul.com

“100억원 기금모아 젊은 불자 육성”

윤제철 대불련 총동문회 회장

“젊은 세대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도록 지원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소규모 활동만으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만큼 젊은 불자 육성을 위한 전발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대불련이 진행하는 젊은불자 육성은 어떻게 진행될까. 윤제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총동문회장은 1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젊은불자 육성기금 마련 및 회관 건립, 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청사진을 밝혔다.

윤 회장은 이날 “대학생 불자들에게 대한 장학사업과 군부대 법당 건립 및 군포교 지원사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현재 타종교에 비해 열세인 청년불교 현실을 지적했다.

윤 회장은 “전국 350 여 대학 중 불교학생회가 조직된 대학은 144개에 불과하며 300만 대학생 중 불교활동을 하는 학생은 약 2000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근 취업난으로 인해 줄어들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윤 회장은 이와 함께 “전국 군부대의 경우도 심각해 개신교·천주교 교회는 1200개에 달하는 반면 군법당은 410곳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부족한 군승법사 135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불련은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3년간 대학생불자들에게 약 7000여 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3개 군부대에 2억 6000만원 규모의 법당 불사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현재 소규모 활동만으로는 젊은 불자들에게 대한 포교가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 이번 기금 마련에 나서게 됐다.

윤 회장은 “대불련 총동회는 향후 포교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젊은 불자들을 위한 회관 마련을 위해 총 100억원 규모의 ‘젊은불자육성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며 “2월18일 ‘젊



300만 학생중 불자 2000명 장학사업·군포교 지원 100억 기금마련은 불교미래 2월 18일 발원대법회 개최

은불자 육성발원 대법회’에 사부대중의 깊은 관심과 후원으로 불교중흥의 발판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젊은불자육성대회는 3부에 걸쳐 진행된다. 1부 행사에서는 ‘왜 젊은불자에게 기대하는가?’를 주제로 대불련 학생들의 국악연주와 율동과 함께 동문회 주요활동 및 젊은불자 육성 성과보고가 이어지며 공로자 및 후원자에 대한 감사의 시간 또한 진행된다.

2부 행사에서는 ‘당신을 보았습니다’만해시 낭송을 시작으로 젊은불자 육성 사업계획이 보고되고 젊은불자 육성을 위한 현장 기부약정식이 개최된다.

3부에서는 대불련 동문들의 성악과 연주 등과 대불련 동문들의 젊은 불자 육성불사를 위한 서원과 다짐의 시간이 진행된다.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범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임시다!
사찰등록!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목탁 हे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